

2. 아트를 ‘자산’으로 본다는 것

지금까지 많은 호텔과 건축 프로젝트에서 아트는 공간을 정리하고 분위기를 만드는 인테리어 요소로 선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관점에 머무는 한, 아트는 결국 교체되는 장식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바뀌고, 예산 항목으로 소모되며,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하지만 개발자의 관점에서 아트를 ‘자산’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트에는 작가의 정체성, 시대적 맥락, 평가의 축적, 그리고 시장이 존재합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형성되고 강화되는 구조입니다. 즉, 잘 선택된 아트는 비용이 아니라 프로젝트와 함께 성장하는 자산입니다.

다시 말해, 아트는 ‘공간을 장식하는 요소’가 아니라 프로젝트의 장기적 가치를 형성하는 전략적 자산입니다.

자산으로서의 아트를 공간에 도입한다는 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작품을 배치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부동산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문화적 가치를 보유한 자산으로 포지셔닝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프리미엄 프로젝트와 일반 프로젝트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됩니다.